

금호타이어 파업 질주... 지역경제 '핑크' 우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064.73 (-18.89)
- ▼ 코스닥 776.57 (-5.42)
- ▼ 금리 (국고채 3년) 1.75% (-0.02)
- ▼ 환율 (USD) 1153.60원 (-4.70)

최고대우 약속 불구 쟁의행위 투표 89% 찬성 가결
“사측 교섭 제안 언제든지 임할 것”... 신중한 입장도

금호타이어 노조가 파업을 결의했다. 압도적인 찬성률로 파업을 결의한 노조는 향후 분교섭 항방에 따라 파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워크아웃을 졸업하자마자 최장기 단체교섭 및 파업사태를 겪은 바 있어 지역 경제계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지회는 지난 20~21일 광주·곡성·평택 공장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받아 재적조합원 88.8%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2998명 가

운데 2852명이 참여해 95.1%의 투표율을 보였다. 찬성 조합원은 2663명으로 재적인원 찬성률은 88.8%였다. 반대는 335명으로 11.2%를 기록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올해 임금인상안을 놓고 최근까지 실무교섭을 포함해 11차례 단체교섭을 벌였으나 회사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자 파업을 결의했다.

회사는 동종업계 최고 수준의 대우 약속과 임금 970원(일당) 정액 인상, 올해 경영실적에 따른 성과급 지급, 임금피크제에 연동한 정년 60세 연장 등을 제시했다. 반

면 노조는 임금 8.3% 정률 인상과 2014년 경영성과급 배분, 기피직무 수당 지급, 1958년생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교섭이 결렬되자 지난 14일 전남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고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는 등 파업 수순 밟기에 들어갔다. 노조 관계자는 “높은 찬성률은 회사 제시안에 대한 조합원의 인식을 보여준다”며 “납득하기 힘든 제시안을 내놓은 회사는 더욱 성실한 자세로 교섭에 임해야 파업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미 업계 최고 대우 약속을 제시했는데도 정률인상과 같은 무리한 요구를 하면 회사의 어려운 경영상황을 감안할 때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노조의 파업 가결로 2년 연속 파업이 우려되고 있지만 아직 노사 모두 파업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노조는 “쟁의대책위원회를 꾸리기 전 회사의 교섭제안이 오면 언제든지 교섭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국을 막기 위해 노사가 교섭에 적극 나선다면 8월 초로 예정된 휴가 이전에 단체교섭이 타결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지난해 단체협상 타결까지 8개월이 소요됐고, 타결 이후에도 노조가 도급화 철회를 요구하며 부분파업을 벌이는 등 극심한 노사갈등을 겪었던 만큼, 올해 역시 노조가 협상을 위해 파업을 강행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2013년을 제외하고 2011년부터 매년 파업을 벌여왔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주택담보대출 부담 ‘나눠 갖기’로 해소

정부 가계부채 대책 세부내용
일시상환보다 이자 감소 효과

정부가 22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핵심은 주택담보대출의 구조를 일시상환에서 분할상환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안심전환대출 상품처럼 처음부터 나눠 갖는 대출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지향점이다.

일시상환 대신 분할상환으로 돈을 빌리면 월리금을 함께 갚아나가는 구조여서 전체적인 이자 부담은 줄어든다. 그만큼 부실화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실제 사례를 통해 일시상환과 분할상환의 이자부담 차이를 비교해 보면 쉽게 감을 잡을 수 있다.

연소득 3000만원인 직장인이 올해 집을 사면서 연 3.5% 금리로 1억원을 대출 받는다고 할 경우 이자는 어떻게 될까.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일시상환 방식을 택하고 대출기간 5년에서 만기를 연장해 20년간 대출을 끼고 있었다면 매월 29만원씩 이자를 내다가 만기에 1억원을 한 번에 갚아야 한다. 총이자가 7000만원이다.

또 이 경우에는 장기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반면에 대출기간 20년으로 월리금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돈을 빌리면 매월 58만원의 월리금 부담이 생긴다. 하지만 대출기간에 내는 총이자 4000만원으로 같은 대출기간의 일시상환보다 연간 150만원, 총 3000만원이 적다.

정부는 또 은행들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이자율을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잠재적 금리상승으로 예상되는 상환부담 증가액을 산출해 대출 가능 규모를 상정하기 위해서다.

최근 3~5년간 금리 변동폭을 고려해 상환할 계획이다. 이는 대출금리와는 관계 없지만 상환액이 늘어나는 만큼 대출 가능한 한도에 영향을 준다. 연소득 3000만원인 직장인이 올해 집을 사면서 연 3.5% 금리로 1억원을 대출 받는다고 할 경우 이자는 어떻게 될까.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일시상환 방식을 택하고 대출기간 5년에서 만기를 연장해 20년간 대출을 끼고 있었다면 매월 29만원씩 이자를 내다가 만기에 1억원을 한 번에 갚아야 한다. 총이자 7000만원이다.

또 이 경우에는 장기 주택담보대출의



22일 한국전력 본사에서 열린 '2015 KEPCO(한국전력공사 영문명칭) 대학생 서포터즈' 발대식에서 137명의 전국 대학생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전 대학생 서포터즈로 선발된 학생들은 한전과 국민 간 소통을 위해 온·오프라인에서 한전의 서비스와 제도를 알리게 된다. <한전 제공>

광주·함평 빛그린국가산단 민간자본 투입... 연내 착공

자동차 전용산단으로 개발 중인 광주·함평 빛그린국가산단단지 조성 공사가 민간사업자의 대항방식으로 연내 시작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조명현)는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빛그린국가산단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사업 계획 변경으로 자동차 전용산단의 지원기능을 크게 강화하고 사업성과 분양성을 높여 외부자본 유치를 통한 대형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LH는 이에 따라 연내 착공을 목표로 산단 내 자동차 생산라인 등 필요부지에 대해 오는 11월경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광주신세계 특급호텔 발목 잡은 서구 조례 본회의 통과할까

광주시·서구 “상위법에 반한다” 반발

광주신세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급호텔 건립이 해당 자치구의 조례 개정 논란으로 제동이 걸렸다. 조례대로라면 특급호텔과 면세점 등의 복합소פע를 건립이 불가능해 특급호텔 건립 계획을 수정하거나 사업 자체를 었던 일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22일 광주시와 광주신세계 등에 따르면 광주 서구의회는 지난 20일 제237회 임시회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격론 끝에 원안가결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서는 6000㎡ 이상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할 수 없으며, 대기업용상업사업자의 6000㎡ 미만 점포는 전통시장산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또 ‘주거·녹지지역에서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변경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협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새롭게 담겼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옥수 의원은 “지역경제 안정과 전통시장 및 영세상인 생존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했다”며 “최근 서구에 특급호텔 등 복합소פע를 건립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개정안 상정 의미를 설명했다.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일단 가결됐지만 광주 서구청과 광주시 등은 ‘조례안이 상위법에 반하고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24일로 예정된 본회의 결과가 주목된다.

노용재 광주 서구청 경제문화국장은

“중소기업 발전·지역경제 활성화 노력”

박 덕 규 IBK기업은행 호남지역본부장

“중소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뢰받을 수 있는 참 좋은 은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덕규(53) IBK기업은행 신입 호남지역본부장은 “그 동안 영업현장에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중소기업금융의 리딩뱅크 역할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역 균형 성장의 기반 마련을 위해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협력해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본부장은 광주인성과 고조선대 회계학과를 졸업하고, 광주과학기술원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했다. 1989년 기업은행에 입사, 20년 이상 광주·전남 지역 영업현장에서 뛰었다. 여천지점장, 영동공단지점장, 하남공단지점장을 역임했다. 고경과의 높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탁월한 친화력의 소유자로 정평이 나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상 표창·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는 상가1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재 011-607-5330

신제품 **59만원**~

M.H.타사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NAVER 주소: (대산프리모) 광

大山프리모가발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강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까지...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초등학교 총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전남대학교

초혼 추천 회원 재혼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의사, 변호사 32-65세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국영기업체 기간직 52-66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대기업 간부 36-59세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무출신 여성' 희망 31-58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VIP 희망 여성 29-53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63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공무원, 교사 32-5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교사, 교수 28-49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복 27-36세	자영업, 가사 35-64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하남동 810 6층
 (02) 521-4405

호남 지사 (063) 275-7766